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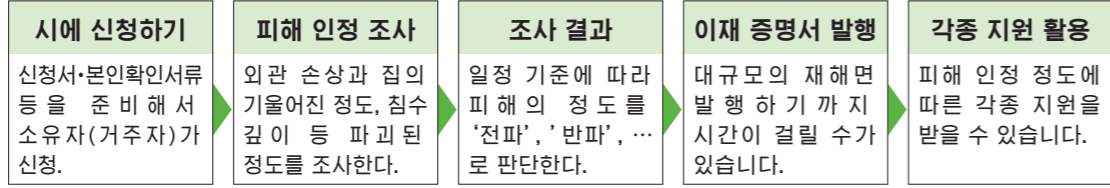
재해가 닥쳤을 때 도움 되는 지식

만일 자택이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 제도와 절차, 건물을 정리하는 요령 등 재해를 입었을 때 기본적으로 할 일을 알아둡시다.

'이재(罹災) 증명서'는 주거의 피해 정도를 증명하는 문서.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이 피해를 입어서 공적 지원을 받거나 화재 보험과 공제 보험 등을 청구할 때 피해 정도를 증명하는 이재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시의 조사원이 현지 조사를 시행, 판단 후 증명서가 발행됩니다.

발행이 되기까지 과정



문의 방재·위기 관리부 TEL 089-948-6794

피해 인정 기준(수해로 인한 목조·조립식 주택의 1~2층 단독주택의 경우)

피해 정도	전파	대규모 반파	중규모 반파	반파	준(準) 반파	준 반파에 미치지 않음 (일부 손상)
이미지도						
손해 비율	50% 이상	40% 이상 50% 미만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침수 깊이에 따른 판정	주택이 떠내려 간 상황 또는 침수 깊이가 바닥에서 1.8m	침수가 바닥에서 1m 이상 1.8m 미만	바닥에서 0.5m 이상 1m 미만의 침수	바닥에서 0.5 미만의 침수		마루 밑까지 침수

재난 피해의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둔다.

이재 증명서가 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피해 인정 조사를 받기 전에 집 정리나 수리할 때 먼저 재난피해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둡니다.

포인트

- ★ 정확하게 피해 인정을 받기 위해 사진을 많이 찍을 것.
- ★ '멀리서' 그리고 '확대해서' 한 장씩 2장을 세트로 찍어둘 것.
- ★ 피해입은 곳이 어느 부분인지 손으로 가리키며 찍을 것.
- ★ 촬영 일시를 기록해 둘 것, 등.

집 밖의 촬영 포인트

- 사방에서 촬영한다. 파손이 심한 곳은 확대 컷으로 찍는다.
- 침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찍는다. '확대해서' 찍을 때는 줄자의 눈금을 대고 찍는다.
- 자동차와 야외 조립식 창고의 피해 정도도 찍는다.

집 안의 촬영 포인트

- 재난 피해를 입은 각 방에서 방 전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사진과 파손 부분을 확대해서 찍은 사진을 찍는다. 창문, 내벽, 바닥, 창틀, 문, 소지(일본 전통 종이문), 세면대, 침수된 가전 등.

참고

'이재 신고 증명서'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등의 피해 사진 등으로 확인하고 이재민에게서 '이재' 신고가 있었다고 증명하는 서류. 현지 조사는 행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미한 피해, 자동차와 집의 재산 등의 동산 피해, 벽과 조립식 창고 등의 피해는 이 증명서에서 대처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지원 제도

자택이 피해를 입었을 때 공적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해의 규모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원 내용과 문의처는 재해 발생 후 시의 홈페이지 등에서 공지됩니다.

- 이재민 생활재건지원금
- 재해원호자금(대출)
- 재해 조의금·재해 위로금
- 공공요금 등 유예·감면
- 자택응급수리
- 응급가설주택 입주

문의 재해 대책 본부(재해 발생 시 설치) TEL 089-987-7000

칼럼 '재난 피해 건축물 응급 위험도 판정'이란?

여진 때문에 집이 붕괴되고 벽이 낙하하는 등 사고가 없을지 급히 위험성을 판정하는 것. 이재 증명의 피해 인정이 아니라 이차 재해 방지가 목적입니다. 판정을 실시한 건물은 '위험(빨강)', '주의가 필요(노랑)', '조사를 마친(녹색)'의 스티커가 붙여집니다. 단 '위험' 판정을 받은 건물이 이재 증명서에 '전파', '반파' 등으로 인정 된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주택 정리(청소·건조·소독)하는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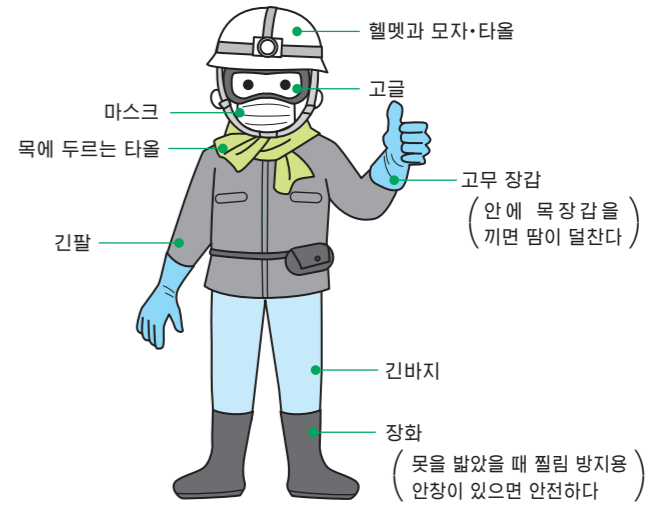
물에 잠겼던 집을 정리하는 건 고된 작업입니다. 생활 기반망이 복구되지 않으면 생각처럼 정리가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혼자 무리하지 말고 자원 봉사자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도록 합니다.

실내 정리

- ①실내의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토사를 치웁니다.
- ②바닥·벽·천장 등은 진흙으로 오염된 부분을 물로 씻어내거나 걸레로 닦아내고 충분히 건조한 후 소독액을 머금은 천으로 닦습니다.
- ③침수된 가구는 '그대로 쓸 수 있는 가구', '건조한 후 쓸 가구', '처분할 가구'로 나눕니다.
- ④처분할 물건은 재해 발생 시 쓰레기 처리 규칙에 따라서 폐기 처분합니다.

작업할 때 옷차림

기본 옷차림은 목재와 뭇으로 다치지 않고 흙과 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합니다. 열사병을 막기 위해 자주 수분과 휴식을 취합니다.
※바닥 작업용으로 헤드라이트가, 귀중품 소지를 위한 웨이스트 파우치가 있으면 편리합니다.



바닥과 집 주변 정리

- ① 집 주변의 오염된 진흙과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정원수와 외벽에 묻은 흙과 오염을 물로 씻어낸다.
- ②바닥에 물과 진흙이 차 있으면 곰팡이와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삼으로 바닥의 오염된 진흙과 쓰레기를 치우고 깨끗한 물로 씻어낸 후 선풍기나 덕트팬(송풍기)으로 건조를 제대로 시킵니다. 바닥 위까지 침수 되었을 땀 꼭 소독까지 해야 합니다.
- ③바닥 환기구의 쓰레기를 치워서 바닥에 바람이 잘 통하게 합니다.
- ④전문 지식이 필요할 때는 시공 업체에 상담하거나 자원 봉사자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철저한 건조가 중요!

소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진흙과 오염을 제거하는 것'과 '충분히 말리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가 충분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발생하고 소독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말립니다.

소독 방법

주택과 가구의 소독은 청소 후 충분히 말린 다음에 실행합니다. 소독액은 주로 역성 비누(소독용), 하이포아 염소산(가정용 염소계 표백제로 대응 가능), 소독용 에탄올을 사용하며, 이들은 약국과 홈센터(생활용품 백화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쓰는 소재에 알맞은 소독액을 골라 사용 설명서를 보고 바르게 사용합니다.

참고

재해 자원 봉사자

주택이 재난 피해를 입어 정리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원 봉사자의 힘을 빌립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자원 봉사 센터가 설치되므로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재해지에서 재해 자원 봉사자로서 활동하려면 사전에 자원 봉사 활동 보험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문의

마쓰야마시 사회복지협의회 자원 봉사 센터 TEL 089-921-2141

재해 시 쓰레기 배출 방법

생활 쓰레기

상하기 쉬운 음식물 쓰레기 등 타는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배출 장소에 내놓습니다. 종이류·병과 캔·페트병 등은 될 수 있는 한 주택 부지 안에 보관해 주십시오.

재해 쓰레기 (정리 쓰레기)

시가 지정하는 임시보관장에 반출합니다. 임시보관장은 재해 쓰레기를 일시적으로 보관해 두는 장소를 말합니다. 설치 장소, 분별·배출 방법에 관해서는 준비가 되는대로 공지합니다.

도로와 빈터에는 쓰레기와 건물 잔해를 버리지 마세요!

재해 쓰레기와 건물 잔해를 도로에 내놓으면 인명 구조와 생활 기반망의 복구가 늦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임시보관장을 시에서 안내할때까지 자신의 주택 부지 안에 보관을 해주십시오.

- ⚠ 피해 상황에 따라 쓰레기 수거나 처리 시설이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와 분별 방법, 임시보관장이 설치되는 곳 등 최신 정보는 재해 발생 후 시의 홈페이지 등에서 공지합니다.

문의 환경 모델 도시 추진과 TEL 089-948-6434



뚱쳐야 산다: 이웃과 도우며 위기를 대처

재난이 발생하면 중요한 게 바로 이웃끼리 서로 돕는 것입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재난 약자*, 대피 행동 지원 수요자**)을 원조하는 것 역시 기본적으로 지역 협력입니다. 방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협력 체제가 꼭 필요합니다.

*1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등 특별히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재난약자 중에서도 재난 발생 시 또한 재난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스스로 대피할 수 없어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방재의 기본은 자조(自助)·공조(共助)·공조(公助)의 연계

자조(自助)...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
공조(共助)...지역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서로 돕는 행동
공조(公助)...국가와 지방 공공 단체의 행동

방재의 기본은 '자조', '공조', '공조'가 연계하며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 비율은 자조(自助) : 공조(共助) : 공조(公助) = 7 : 2 : 1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자조'를 이해하고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를 서로 지키려는 '공조(共助)'로 이어서 방재와 감재를 위해 노력합니다.



평소에 준비할 수 있는 방재

지역 방재 훈련 등 활동에 참가

훈련에 참가함으로써 방재 행동을 확인하여 실제 재해가 발생하면 냉정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 행사에 참가, 이웃에게 인사

지역 행사에 참가하고 이웃에게 인사하는 등 평소에 가까이 지냅니다.



도움을 요청할 연락처 메모

유사시에는 도와달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도움 줄 사람의 연락처를 기록해 둡니다.



마쓰야마시의 자주방재조직에 대해서

대규모의 재해가 발생하면 소방이나 경찰 등 공적 기관만으로는 구출 활동을 다 해내지 못합니다. 자주방재조직은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서 지역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평소에 방재 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주민 단체입니다. 각 조직은 고령자가 많고 토사 재해의 우려가 있는 등 그 지역 실정에 맞춰서 방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주방재조직의 활동과 훈련 등에 대한 정보는 마쓰야마시에 문의해 주십시오. 마쓰야마시의 자주방재조직의 핵심이 되는 '방재사'는 전국 지자체에서 최다수를 자랑합니다.

마쓰야마시 자주방재조직

- 조직수 **753**조직
- 방재사 인원 **7,136**명
(2022년 1월 말일 현재)

문의

방재·위기관리과 TEL 089-948-6795

대피 행동 지원 수요자 제도란?

재해 발생 시 자력 대피가 곤란한 사람이 미리 대피 행동 지원 수요자 등록을 해두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피 지원과 안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지원은 행정과 민생·아동 위원, 협력원, 자주방재조직 등이 연계를 통해 진행되며 대피 행동 지원 수요자 명부에 등록된 정보는 엄중한 관리하에 대피 지원 관계자에게 공유됩니다.

마쓰야마시의 등록 대상자

- 혼자 사는 고령자
- 거동이 힘든 고령자
- 신체장애가 있는 자(신체장애인 수첩 1~3 소지자)
- 지적장애가 있는 자(요육수첩 소지자)
- 정신장애가 있는 자
(정신장애자 보건복지수첩 소지자)
- 난병 환자(특별 의료비(지정 난병)수급자증 소지자)
- 소아 만성특정질병 아동 등
(소아 만성특정질병 의료수급자증 소지자)

등록 신청처·문의처

- 고령자**
고령복지과 TEL 089-948-6408
-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장애복지과 TEL 089-948-6353
- 심신장애인, 난병환자**
보건예방과 TEL 089-911-1816
- 소아 만성특정질병 아동 등**
건강조성추진과 TEL 089-911-1870

지역 협력으로 재난약자를 원조

재해 시에는 재난약자와 대피 행동 지원 수요자가 무사히 대피해서 피난생활을 보낼 수 있게 지역이 다 같이 협력합니다.

고령자·병상자

여러 사람이 함께 대응. 등에 업거나 팔꿈치와 어깨를 빌려주고 안전한 장소로 유도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들것을 이용해 이동합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

계단 같은 곳에서는 꼭 3~4명이 협력해서 이동합니다. 올라갈 때는 방향을 앞으로 하고 내려갈 때는 방향을 뒤로 해서 높은 곳에서 공포심이 들지 않게 조심합니다.



※좌우로 2명, 앞뒤에는 1, 2명

외국인과 여행자

일본어를 몰라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알기 쉬운 일본어와 손짓 몸짓으로 말을 걸어 고립감을 느끼지 않게 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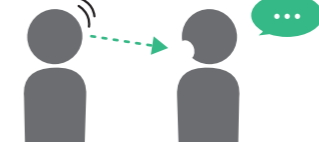
시각장애인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의 지팡이를 왼 손은 그대로 두고 팔꿈치 쪽에 가볍게 손을 대고 건거나 상대가 내 팔을 잡도록 하여 반도 앞서서 천천히 걸립니다. 방향은 시계의 숫자판 위치로 전달합니다.



청각장애인

상대방의 앞으로 얼굴을 마주 보고 서서 입을 크게 움직이며 천천히 말을 합니다. 필담도 효과적이지만 필기도구가 없다면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도록 합니다.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은 자신이 힘들어도 주변에 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리해서 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말을 걸어 힘든 점이 없는지 물어보고 도와줍니다.



응급처치를 알고 있자.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동시에 많은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구급대의 활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 주변 사람들이 다쳤을 때 간단한 처치와 운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평소에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 기술을 익혀 둡니다.

심폐소생술

1 의식을 확인한다

-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습니까?' 하고 말을 건다.
- 반응이 있는지 본다.



2 119번에 도움을 요청

- 반응이 없을 때는 큰 목소리로 주변에 도움을 청한다.
- 협력해주는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다.
- 협력해주는 사람에게 AED 운반을 요청한다.

3 호흡을 확인

- 가슴과 배의 움직임을 보고 '정상시의 호흡'을 하고 있는지 10초 이내로 확인한다.
- 가슴과 배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상시의 호흡'이 없음으로 판단하고 심장 압박을 한다.

4 흉골을 압박

- 양손을 겹쳐서 양팔을 곧게 뻗어 가슴의 중간에 놓는다.
- 가슴이 5cm 정도 내려갈 때까지 압박한다.
- 1분에 100~120회의 속도로 실행한다.

※흉골압박과 인공호흡을 병행할 때는 흉골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반복한다.



5 인공호흡을 한다

- 턱을 당겨 올려서 기도를 통하게 하고 엄지와 검지로 코를 막는다.
-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입을 막고 1초 동안 숨을 불어 넣는다.
-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확인한다.
- 입을 떼고 다시 같은 요령으로 숨을 불어 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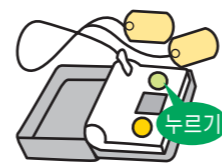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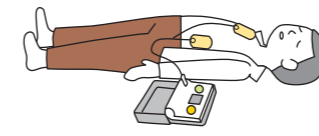
심폐소생을 시행할 때 AED가 닿는 곳에 있다면 금방 쓸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1 전원을 켭니다.

※음성 메시지가 흘러나옵니다.



2 패드를 부착 부위에 부착합니다.



3 AED가 충격이 필요하지 판정합니다.



4 충격이 필요하다 판정되었을 경우 환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고 쇼크 버튼을 누릅니다.



마쓰야마 시내의 AED 설치시설은 시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ity.matsuyama.ehime.jp/kurashi/iryo/kyubyokuyuku/aed.html>



우리 집 방재 대책

방재·감재를 위해서는 평소에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잘 알고 평상시에 대책을 세워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택이 피해가 없다면 대피소에 갈 필요가 없으며 자택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집 주변의 안전 대책

식목

평소에 정원수 나뭇가지가 부지 밖으로 빠져나와 이웃집이나 거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지붕 기와·텔레비전 안테나

지붕의 기와가 비둘어져 있거나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안테나 상태가 불안정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수리한다.

물받이·빈지문 (비막이 덧문)

지붕 물받이에 낙엽과 토사가 막고 있지는 않은지 연결부분이 떨어져 있지 않은지 빈지문은 여닫이 상태가 괜찮은지 문제가 있으면 수리한다.

벽돌담

벽돌담을 쌓을 때 땅 안에 기초공사하지 않았다거나 벽돌 안에 철근을 넣고 만들지 않았다면 보강한다. 담에 금이 가거나 기울어졌다면 수리한다.

옆도랑·배수구

평소에 쓰레기와 낙엽, 토사를 치우고 빗물이 잘 내려가도록 해준다.

현관 주변

들어가고 나가는데 지장을 일으키는 물건은 놓지 않는다. 강한 바람이 불 땀 화분과 자전거를 집 안에 넣어두거나 고정해준다.

창틀·창유리

창틀에 화분을 두지 않는다. 창유리의 균열과 창틀의 덜거림이 없는지 확인한다.

프로판가스

가스통이 넘어지지 않게 제대로 된 토대 위에 놓고 벽면에 쇠사슬로 고정한다.

칼럼 Column 지진보험에 가입해두기

지진보험은 화재보험에 부속해서 계약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지진의 진동으로 인한 주택과 재산의 손해는 물론 지진이 원인으로 발생하는 화재와 지진해일로 인한 손해에도 일정액 보상이 있습니다. (화재보험만으로는 지진으로 인한 화재에는 보상안 됨) 재난 피해 후 생활 재건을 위해 가입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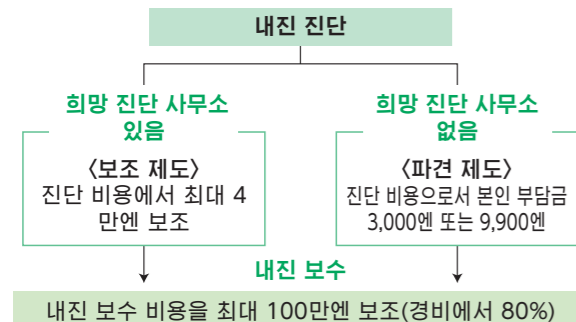
베란다·실외기

물건이 흩어지지 않게 잘 정리해 둔다. 실외기도 날아가지 않게 고정한다. 태풍이 접근할 때는 빨래걸이를 바닥에 내려두고 배수통을 청소한다.

보조제도를 이용한 내진화 설계

목조 주택 내진화 보조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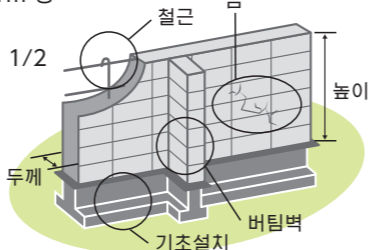
대상 / 1981년 5월 말 이전에 착공한 목조 단독 주택(2층 이하에서 총면적 500㎡이하)



내진화가 100% 진행되면 난카이 해곡 지진의 전파 피해는 약 10분의 1로 줄어들며 건물 붕괴·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약 19분의 1까지 경감된다고 상정하고 있습니다.

벽돌담 안전 대책 보조제도

- 대상 / • 대피로와 통학로에 접하고 있는 벽돌담
• 위험한 벽돌담 등 (점검 사항에 1개라도 해당할 경우)
- ①너무 높은 벽 (2.2m 이하)
 - ②담 두께 (10cm 이상)
 - ③버팀벽은 있는가 (벽 높이가 1.2m를 초과할 경우)
 - ④콘크리트 기초가 있는지
 - ⑤벽이 기울거나 금이 간 데 없이 안전한지
 - ⑥철근이 보강되어 있는가 (전문가 상담)
- 보조제도 / • 제거 또는 재건 비용의 2/3 (1m 당 8만엔 정도) 상한 30만엔
• 기초가 없는 벽의 제거 비용의 1/2 상한 7.5만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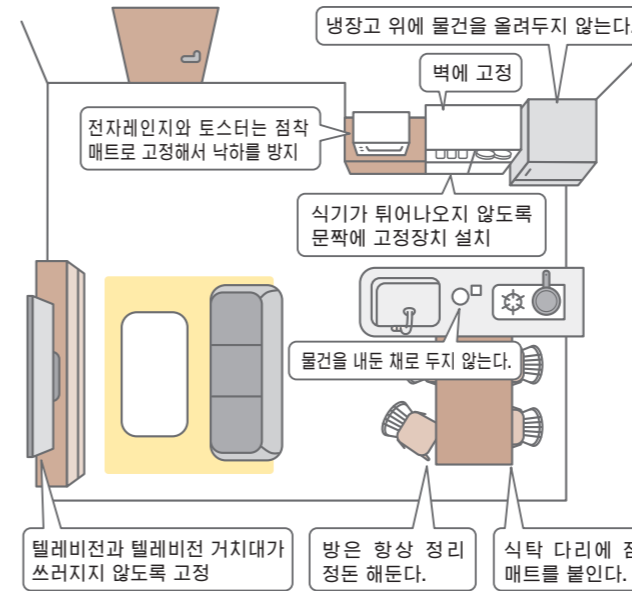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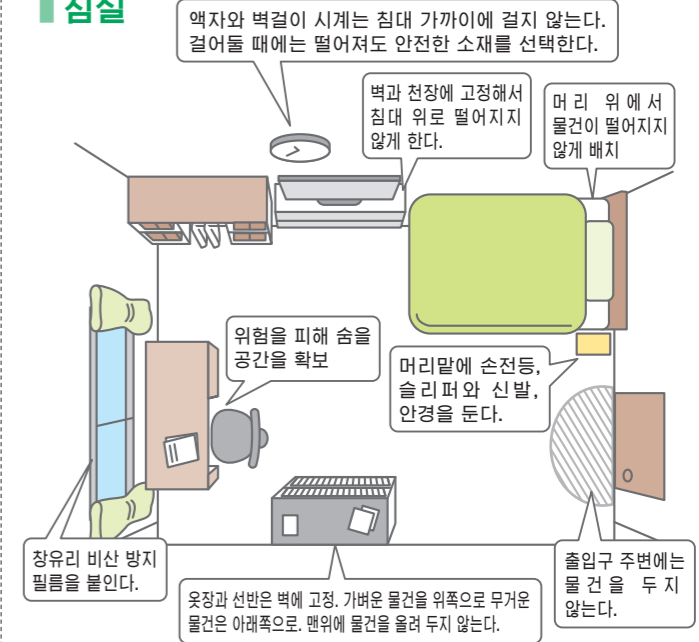
건축지도과 TEL 089-948-6512

집안 안전대책

■ 거실·주방



■ 침실



■ 가구 고정·전도 낙하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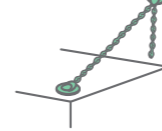
L자 브래킷

가구와 벽을 직접 고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이다. 벽의 골조가 있는 위치에 고정한다.



체인식 기구

가구와 벽에 각각 연결 금속을 못으로 고정하고 두 개의 연결 금속을 체인이나 벨트로 묶어서 가구를 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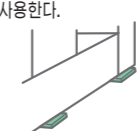
압축봉 (폴식 기구)

가구와 천장의 틈에 설치한다. 가구 밑면에 점착 매트를 쓰는 방법과 병행하는 방법도 있다.



점착 시트 (매트식)

점착성이 있는 걸 상태의 매트. 가구 밑면과 바닥, 텔레비전과 텔레비전 거치대를 밀착하는 데 사용한다.



가구 지지대

가구의 전방 하부에 끼워 넣어서 사용. 벽 쪽으로 기울어서 가구의 전도와 이동을 방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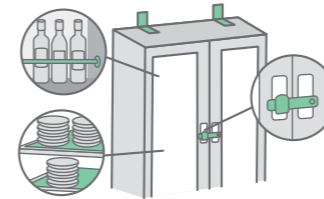
캐스터 받침

캐스터 밑에 작은 점시 모양의 기구를 두어 가구의 이동을 방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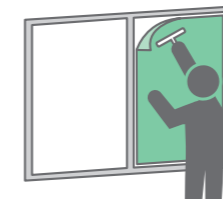
■ 문짝·서랍 대책

식기장의 문짝에 고정장치를 달아 식기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식기 밑에는 미끄럼 방지 시트를 깔는다. 흔들림을 감지하면 잠기는 내진 래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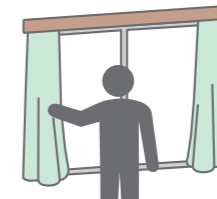


■ 창유리 비산 방지

유리 비산 방지 필름을 붙이면 유리가 잘 깨지지 않고 깨지더라도 파편이 많이 튀지 않게 된다. 추가로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춘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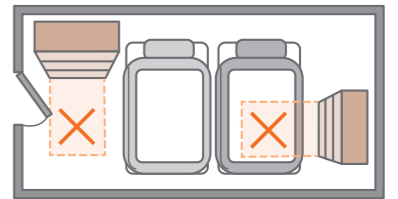


낮에는 얇은 레이스 커튼을 밤에는 두꺼운 커튼을 쳐 두면 비산 방지에 효과적이다.



■ 가구의 배치

문과 대피 경로를 막지 않게 방문과 통로에 가구를 두지 않는다. 잠자는 곳과 난로 위로 넘어지지 않게 가구를 배치. 또, 서랍이 열리는 방향에도 주의해서 둔다.



■ 화재 예방

주택용 소화기

분말 타입과 강화액 타입이 있다. 여성과 고령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주택용 화재경보기

주방과 침실의 천장에 설치하여 열과 연기를 감지하여 소리와 음성으로 화재를 알린다. 건전지 소진에 주의.



방염 제품

불이 붙어도 크게 타지 않는 기능을 가진다. 커튼, 카펫, 이불 등이 있다.



지진 감지 전류 차단기

강한 흔들림을 감지해서 전기를 차단하는 장치. 간이 타입과 콘센트 타입 등이 있다.



칼럼 Column 통전 화재에 주의!

통전 화재란 지진이나 풍수해로 인해 정전된 뒤 전기가 복구될 때 발생하는 화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스토브에 물건이 닿아 전기가 복구된 뒤 불이 붙어 화재로 번집니다. 통전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대피할 때 전류 차단기를 내리고 정전이 되었을 때 콘센트에서 전기기구 플러그를 뽑아 두면 효과적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방재용품

방재용품은 휴대할 수 있는 것, 대피소에 들고 갈 것, 자택에서 피난 생활에 대비한 물건 등 다양한 장면을 고려해서 준비해 둡니다.

방재 꾸러미를 항상 휴대하기

‘방재 꾸러미’는 외출한 곳에서 재해가 닥쳤을 때 만나질 정도는 견딜 수 있도록 휴대하는 물건.

너무 무겁지 않은 정도로 꾸립니다. 파우치나 휴대용 주머니에 넣어서 외출 시에 항상 휴대합니다.



[내용물 예시]

호루라기, 손전등, 모바일 배터리, 사탕·초콜릿과 같이 작지만 고칼로리의 휴대용 간식, 가족의 연락처, 신분증명서(복사본), 필기 용품과 메모장, 현금, 지병약, 마스크, 물티슈, 안경·콘택트렌즈 등

비상 대피 가방 준비

대피할 때 가지고 갈 물건을 최소한으로 준비하여 배낭에 넣고 금방 꺼내서 나갈 수 있는 장소에 둡니다. 라디오와 손전등이 고장이 나지는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귀중품

통장, 인감 도장, 현금, 건강 보험증·운전 면허증(복사본)



생활 용품

의류, 타올, 우산·우비, 티슈·물티슈, 레저 시트, 비닐 봉투, 식품 랩, 담요, 일회용 손난로, 휴대용 칼, 필기용품



물·식료

음료수, 사탕·초콜릿 등 고칼로리 간식, 통조림, 크래커 같이 불을 사용하지 않고도 섭취할 수 있는 음식. ※통조림 여는 칼도 준비



위생용품

마스크, 소독액, 체온계, 액체 비누, 양치 용품, 비상용 휴대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 생리용품



의약품 등

지병약, 해열제·감기약, 위장약 등 상비약, 예비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복용 수첩, 틀니, 보청기



아기 용품

분말 분유, 액상 분유, 젖병, 이유식, 기저귀, 영등이 물티슈, 의류, 방한복, 가제 손수건, 목욕 타올, 모자수첩(산모수첩)



대피 용품

손전등(한 사람당 하나씩 있으면 좋다)과 헤드라이트, 헬멧과 방재용 두건, 목장갑, 슬리퍼



간병 용품

환자식(죽 등), 간병 용품, 어른용 기저귀, 몸 닦는 타올, 의류, 비상약



휴대 라디오

작고 가벼우며 AM과 FM 모두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준비. 수동으로 충전이 가능하고 휴대 전화 충전 기능도 있는 편리한 라디오도 있다.



충전기·예비 건전지

휴대 전화의 충전기, 손전등·헤드라이트와 휴대 라디오의 예비 건전지(충분히 준비)



칼럼 마쓰야마 육아 방재 북

재해가 닳을 때 아기를 식사나 아이들이 대피소에서 지내면서 주의할 점 등 육아 세대의 대피 요령 등을 한 권으로 압축한 책자입니다. 마쓰야마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니,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내 비축품을 준비

수도·전기·가스가 끊기는 것을 생각해서 최소 3일 치, 될 수 있으면 일주일 정도 자택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비축합니다. 특별한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닌 평소 생활에 쓰는 것으로 소비하면서 보충하도록 한다.

■ 물과 식료품

물·주식

식수·조리용으로 한 사람당 1일 3리터 정도가 필요하다. 레토르트 식품, 컵라면, 건면(우동, 소바, 파스타), 시리얼.



단백질 요리·비타민미네랄식품

고기·생선·콩류의 통조림, 카레와 소고기덮밥 등 레토르트 식품, 미소된장국과 수프의 동결 건조 식품.



그 밖

야채 주스, 가마보코·치즈, 비스킷과 초콜릿 등 과자, 뿌리채소, 말린 식료품, 조미료, 영양보조식품.



[‘롤링 스톱’을 활용한 비축]

롤링 스톱이란 일상에서 소비하는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평소보다 많이 사두고 오래된 순서로 사용하며 소비한 만큼 다시 사서 채워 넣는 방식입니다.

냉장고를 이용한 비축

냉장고에 이미 조리된 냉동식품을 비축해두면 자연 해동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부탄가스]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부탄가스가 있으면 물을 끓일 수도 있고 간단한 조리도 가능하기에 재택 대피를 할 때 꼭 필요합니다. 부탄가스 한 개로 약 1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하루에 30분을 사용한다면 일주일에 3~4개는 필요합니다.



사용 기한에 주의!

(기준) 휴대용 가스레인지 약 10년
부탄가스 약 7년

부탄가스는 충분히 준비를!

■ 생활 용품

중요도 높은 용품

비상용 급수 팩이나 생수통, 랜턴,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부탄가스.



<가족 상황에 맞춘 비축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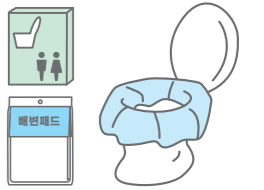
고령자·영유아·지병을 가진 사람이나 애완동물이 있는 가정은 각각의 상황에 맞춰 비축품을 준비합니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알레르기 약이나 저알레르기 식품을 반드시 준비합니다. 또한 일회용 수저와 접시가 있으면 편리합니다.

애완동물용 비축품에는 사료, 화장실 용품(고양이모래, 배변패드, 배변봉투), 이동캐리백, 리드줄 등이 있습니다.



[잊지 말고 화장실도 준비]

단수나 하수도의 손상으로 화장실을 쓸 수 없게 되는 때를 대비해서 비상용 화장실을 꼭 준비합니다. 변기에 쓰여 사용하는 봉지와 응고제가 세트된 상품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한사람에 하루 5회분 정도를 준비합니다.



칼럼 사무실 재난 대책 비축품

귀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회사에서 머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둡니다.

모바일 배터리 / 비상식량·물 / 손전등 / 건전지 / 휴대 화장실 / 편한 신발 / 비옷 / 담요 / 위생용품 등



정기적으로 소비기한과 사용기한 그리고 필수품을 다시 확인하자!

생활 지혜 플러스

식품 랩

식기에 씌워서 사용해 랩만 교환하면 씻을 필요 없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급 처치 봉대나 거즈 대용으로 쓰일 수도 있고 방한 대책 용품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수동 충전 가능 태양광 모바일 배터리

정전 시에도 손으로 돌리거나 태양광 발전으로 충전이 되는 모바일 배터리. LED 램프와 라디오 기능이 있는 것도 있다.



빗물받이 탱크

빗물을 받아 두면 단수가 났을 때 화장실 용수와 그 밖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탱크 설치 시 드는 비용에 조성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수자원대책과 TEL 089-948-6223